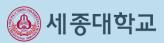
한국현대사의이해

Introduction to the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

14주차. 자본주의의 발전(1) 3강. 미군정기 및 이승만 정부의 자본주의





- 1. 미군정기 및 이승만 정부의 자본주의 발전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?
- 2. 당시 경제정책은 무엇인가?





- 1. 미군정기 및 이승만 정부에서의 자본주의 발전을 이해할 수 있다.
- 2. 그 발전에 대한 기존의 역사적 평가에 기반을 두어 그것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.

제3강 미군정기 및 이승만 정부의 자본주의





생각해 볼 문제



- 자본주의 발전이란?
- 나는 지금까지 미군정기 및 이승만 정부의 자본주의 발전을 어떻게 평가했는가?

- ☑ 경제 현안
 - ➡ 각종 자원과 노동력, 생산력을 고갈시켰던 식민지 자본주의의 유산 극복
 - ➡ 재건 정책
- ☑ 미군정의 대응
 - ➡ 남한을 일본 등에 비해 주변적 변수로 설정
 - ➡ 남한의 경제재건에 대한 관심 부족
 - ➡ 특히, 적산 기업에 대한 부실 관리로 생필품 부족 가중



◆ 경제정책

☑ 적산/귀속재산은 해방 때까지 일본인들이 소유한 기업체, 부동산, 유무형의 동산과 주식 및 지분

☑ 1941년 말 현재, 일본인 회사의 자본이 91%

☑ 식민지 시대의 조선 경제는 일본자본의 지배



- ☑ 적산 공장이 원자재 결핍, 대체 설비의 어려움, 자금부족, 미군정의 관리부실로 가동되지 않았음
- ☑ 미군정이 임명한 관리인의 책임감 문제
- ☑ 일제시기 말기부터 축소재생산, 해방 후 자재와 자금조달 문제로 생산 회복 어려웠음
- ☑ 미군은 퇴각하는 일본인들이 기계시설이나 재고 원료 처분을 막지 않았음
- ☑ 일본인 기술자를 잔류시켜 공장을 가동하지도 않았음



- ✓ 초인플레 속에서 생산적 투자보다 물자난에 편승하여 생산시설과 자재의 불법 판매
- ☑ 투기꾼들의 횡행으로 경제 재건은 더욱 어려웠음
- ✓ 이런 상황에서는 막대한 원조물자가 제공되어도 생산적 활용 불가능



- ✓ 1946년 11월 현재 휴업 중인 390개 사업장의 휴업 원인은 대부분(70%) 원료난
- ☑ 물가지수를 감안한 1940년~1948년간의 생산 감소율은 80%
- ☑ 만성화된 물자부족으로 1945년 8월 말 기준, 도매물가는 1945년 말 2.5배, 1946년 말 14.6배, 1947년 말에는 33.3배 급등



- ◆ 경제상황 및 경제 질서
 - ☑ 법인세, 소득세 거의 전무
 - ☑ 미국의 원조에 전적으로 의존
 - → 〈점령지역행정구호원조〉
 - ➡ 약 4억900만 달러
 - ➡ 식량, 비료, 연료, 의약품 등의 생활필수품



- ◆ 경제상황 및 경제 질서
 - ☑ 근대적 시장경제 질서
 - ➡ 〈미곡배급제〉 폐지
 - ➡ 생활 물자에 대한 생산, 가격통제 해제
 - ➡ 시장 기능 의존



[한반도에 입성한 미군]

◆ 식량 정책

☑ 해방 직후 식량 통제와 배급제 불가피

✓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쌀의 은닉 방지, 유통과정에서의 모리배 배제

☑ 미군정이 초기에 쌀 자유 시장 개설 허가, 매점매석 횡행, 쌀값 급등



◆ 식량 정책

✓ (미곡통제령〉 발표, 이때 설정한 최고판매가격이 시가와 차이가 커 매점매석 조장

☑ 쌀의 자유 유통을 전면 통제하는 〈미곡수집령〉 발표

☑ 배급 대책도 없이 쌀의 도시 반입 금지, 쌀값 폭등 초래



◆ 농지개혁 및 귀속재산

☑ 인구: 농민(70%)/소작농(농민의 80%)

✓ 목적

- ➡ 자립적 생존 기반 마련, 정치적 지지 집단화
- ➡ 방식: 유상 분배·유상몰수(cf. 북한, 무상몰수·무상분배)
- ➡ 사적 재산권 보호 훼손
- ➡ 정치적 안정, 경제적 기반 구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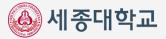
◆ 농지개혁 및 귀속재산

- ☑ 일제 귀속 재산의 불하
 - ➡ 미군정 소유(공장, 회사, 금융기관, 광산 등)
 - ➡ 일부 귀속재산은 불하 처분



◆ 한국전쟁 이전

- ☑ 〈귀속재산처리법〉(1949. 12. 19.)
 - ➡ 기간산업의 국유화, 나머지는 민간 소유로 전환
 - ➡ 민간기업(특히, 대기업) 생성
 - ➡ 정경유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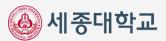
◆ 한국전쟁 이전

귀속재산처리법

- 귀속재산 처리 규정 법률
- 귀속재산 처리를 통한 산업 부흥, 국민경제의 안정 도모하기 위한 목적
- 귀속재산 가운데 공공성이 있고, 영구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동산·부동산은 국유 또는 공유
- 공공성이 현저한 기업체, 광산, 제련소, 기계공장 등은 국영 또는 공영
- 그 밖의 기업체, 동산, 부동산, 주식 등 매각, 연고자 또는 공익단체 등에 우선권 인정

◆ 한국전쟁 이후

- ☑ 미국 원조
 - ➡ 국토, 산업시설 파괴
 - ➡ 전후 최우선 경제 과제
 - : 경제복구, 국민의 생존
 - ➡ 미국의 원조에 전적으로 의존
 - : 정부 세입 중 대충자금 비중 44.8% (1954~59년)



◆ 한국전쟁 이후

- ☑ 원조 경제의 이중성
 - ➡ 민생 구제, 소비재·유통 중심 산업
- ☑ 미국의 의도
 - ➡ 일본 중심 정책(냉전 시대의 자유진영의 축)
 - ➡ 한국의 일본 공산품 시장으로서의 역할



- ◆ 한국전쟁 이후
 - ☑ 수입대체산업(유리, 제련, 시멘트, 비료공장 등)
 - ☑ 잉여생산물 무상원조 계획(PL 480)
 - ➡ 미국의 〈농업수출 진흥 및 원조법 (Agricultural Trade Development and Assistance Act)〉
 - ➡ 자국의 농산물가격 유지, 농산물 수출 진흥
 - ➡ 저개발국의 식량부족 완화
 - ➡ 1954년에 법제화, 그 규정에 따라 잉여농산물원조를 각국에 제공
 - ➡ 이 법이 〈미공법 480호〉, 줄여서 〈PL 480〉



◆ 한국전쟁 이후

☑ 원면, 밀, 원당의 저가 도입

☑ 면직물, 설탕, 밀가루 산업 주도의 공업화

☑ 삼백(三白)산업



◆ 한국전쟁 이후

삼백산업

- 중공업이나 첨단산업이 발달하기 이전인 1950년대 한국의 핵심 산업
- 제품이 흰색을 띠는 세 가지 즉, 밀가루(제분), 설탕(제당), 면직물(면방직 공업) 지칭
- 이 산업의 기반은 정부수립 이후 정부로부터 불하 받은 귀속재산(일제 강점기 시설)
- 한국전쟁 이후 외국 원조에 의존
- 원료구입 자금은 대부분 미국의 경제원조와 융자에 의존, 원료도 해외 구입
- 이를 국내에서 가공한 생산품을 대부분 국내에서 소비하는 내수성 산업 구조



◆ 한국전쟁 이후

삼백산업

- 삼백산업은 생산업자가 원료구입 카르텔(원료구입 연합체) 구성, 독점
- 각 업종에 따라 〈한국제분공업협회〉, 〈대한제당협회〉, 〈대한방직협회〉 결성
- 각 협회가 제조업자를 대표하여 원료도입자금 불하 받아, 이를 각 산하 기업에 분배하는 형식을 취함
- 기존의 우선권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업체의 신규가입 제한, 원료 독점
- 한국전쟁 이후의 격심한 물가인상 상황에서 발생하는 외국환(外國換)의 공정가격과 실질 시장가격 간의 격차를 이용하여 막대한 이윤 창출
- 원료의 배분은 생산시설의 규모에 따른 차등



◆ 한국전쟁 이후

삼백산업

- 이들 업체들은 경쟁적으로 시설 확대, 1957~58년경에는 삼백산업이 공룡기업처럼 성장, 포화상태
- 미국의 대한 원조 정책이 바뀜에 따라 삼백산업은 성장이나 호황 마감
- 삼백산업은 한국전쟁 이후 경공업 중심 시대에 정부의 보호 아래 독점적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산업

◆ 한국전쟁 이후

- ☑ 원조 경제, 저환율 경제
 - ➡ 소비재 생산, 유통과정에서 부가가치 창출
 - ➡ 원조 중단은 경제구조의 붕괴
 - ➡ 잉여농산물 도입 → 국내 농산물 생산 저해(가격하락, 농민 궁핍화)
 - ➡ 저화율 정책
 - : 수출산업의 발전 저해
 - : 정경유착(달러 배정 기업특혜)



학습정리

- 한국전쟁 이전 이승만 정부의 〈귀속재산처리법〉은 민간기 업의 형성, 정경유착이라는 양면적 특성을 보여준다.
- 이승만 정부, 특히 한국전쟁 이후의 원조 경제는 이중적인 성격을 노출시켰다.



- 김영봉. 2013. "경제개발과 성장." 차하순 외. 『한국현대사』. 세종연구원. 216-224.
- 김경필. 2018. "이승만 시대 기업의 자본축적 재검토 국가규율의 부재와 고삐 풀린 자본."「노동연구」 37: 227-254.